

# 여수 '2019 국제 섬 포럼' 개막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틀 마련을 위해 '2019 국제 섬 포럼 in Yeosu'를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섬 박람회, 섬과 음식으로 출발하다'라는 주제로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경도리조트와 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섬 전문가, 전국 섬 단체 회원과 주민, MICE 관계자 등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9 국제 섬 포럼은 기초강연, 세션 강연 등의 공식회의와 금오도 인문학 여행으로 이뤄져 있다.

행사 첫날 국제슬로피시협회 Paula Barbeito 코디네이터는 '섬의 가치'를 주제로 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어 세션1 '동아시아 섬의 맛'이 진행된다. 한국슬로피시운동본부 김준 위원장과 중국 출신 Chen Mingzhi, 국제슬로푸드 류큐협회 Yamada saki 사무국장이 강연에 나선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경도리조트 야외무대에서 여수시장, 전라남도행정부지사, 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린다.

둘째 날은 세션2 '섬의 맛과 멋, 그리고 삶', 세션3 '섬섬여수, MICE로 잇다'가 연이어 진행된다.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 양용진 원장, 손죽도 김영란 씨, 금오도체험휴양마을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틀 마련을 위해 '2019 국제 섬 포럼 in Yeosu'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시 제공

## 섬 전문가·전국 섬 단체 회원·주민 등 200여명 참여 기초강연·세션 강연·금오도 인문학 여행 등 진행

박재성 운영위원장, 플레이스랩 정순영 대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임영태 센터장이 강연을 한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섬 인문학 여행'을 떠난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비경길 체험과 섬 음식 만들기, 동백 방향제 제작 등을 경험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국제 섬 포럼을 열게 됐다"며 "올해 포럼이 여수세계섬박람회 분위기 조성 및 섬 음식 관련 MICE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주영남 기자 jyn@

## 보성,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총 60여건 발굴, 사업비 1천375억 원

보성군은 지난 17일 김철우 군수 주재로 30여명이 참석해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군정 핵심 시책을 발굴하는 이번 신규시책 보고회는 민선7기 군정 슬로건인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목표로, 국정 주요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과제 대응과 정부 정책 연계에 중점을 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시책 49건, 계속사업 15건 등 총 64건이 발굴됐으며, 총 사업비는 1천375억 원이다.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행복그린 보성600 사업 △별교문화복합센터 건

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재난안전사고 ZERO화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 타당성과 사업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성군은 이번 신규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0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 전략을 수립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보성군은 민선7기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보로



보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철우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 제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팡파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광양읍 서천변 일원서 열려

'제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26일-29일 4일간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빛과 꽃, 맛의 어울림, 숯불구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며, 축제 기간에 맞춰 서천변 일대에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만개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첫째 날에는 광양시 농악인 한마당 경연대회, 지역합창단 공연, 제13회 코스모스가요제 예선 등 지역주민이 직접

주체가 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 27일에는 '공작지 레크레이션', 광양 사랑 힐링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후 5시 광양시립국악단 식전공연 이후 오후 6시부터 개막식이 열린다. 이후 전남드래곤즈 선수단의 사인볼 증정식, 제13회 코스모스가요제 본선 등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가요제 본선에서는 초대가수로 박상민, 장민호, 박규윤, 정정아, 묵비, 나광진 등 대한민국 대표 가수과 지역 대표가수가 어우러져 그 어느 해보다 멋진 공연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날인 28일에는 제5회 청소년 페스티벌, 가수 정서영 등이 출연하는 광양지역예술인공연, 현진우, 밴드조 등이 출연하는 가을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다.

29일 일요일 마지막 날에는 숯 검댕이 콘테스트, 광양시 이장단 청사초롱 걷기대회, 광양시립합창단 공연, 하이틴팝스, 차세대 등이 출연하는 락 페스티벌을 끝으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축제 기간 부대행사로는 광양문화원, 코스모스길, 서천무지개분수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전국오토캠핑 페스티벌 등이 예정돼 있으며, 아이와 같이 가족사진 찍기, 찹쌀 체험마당, 천연 찹쌀 라벤더 비누 만들기, 숯 공기정화 소품 만들기, 클레이아트 체험, 떡매치기 등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 서천 불고기 특화거리 일대에 조성된 조형물들을 활용해 포토존을 설치하고, 광양 대표 랜드마크 조형물로 자리잡을 12m 높이의 빛 타워 점등식이 준비돼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 고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확보

지역현안 사업 추진 탄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근 고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흥전통시장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비가림 시설 설치, 진입로 정비, 장육시설개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관계부서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흥전통시장

의 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신규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출발전  
행선지 파악

###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 GREEN ENERGY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